

37 지금은 추수 때

Chapter

요 4:28~38, 마 9:35~38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찬양 44장 (주여 오소서)

오늘 배울



말씀

1. 지금이 영혼을 추수해야 할 때임을 압니다.
2.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집회에 동참해야 함을 압니다.

마음 열기



이솝 우화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베짚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개미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베짚이를 좋아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이해하기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추수 때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농부는 봄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하는 시기가 닥쳤을 때 농부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곡식은 금방 스러져 버리고 조금 지나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부의 모든 수고와 희생은 헛되고 맙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남녀노소 모두 추수에 동참하여 곡식을 한 알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밭을 갈 때도, 파종할 때도, 가꿀 때도 아닌 거두는 때, 즉 추수 때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과 선지자들은 밭을 갈고, 주님은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심으로 씨를 뿌리셨다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거두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에 살고 있는 영혼의 추수꾼들입니다. 추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만 자는 게으른 일꾼과 추수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방심하여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에게 거두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곡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그런 일꾼들에게 샅을 이미 지불하고 곡식을 수확해 주기를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사는 우리에게 의해 하나님이 거두시는 수확량과 곡식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4:36)

And he who reaps receives wages, and gathers fruit for eternal life, that both he who sows and he who reaps may rejoice together. (Jn 4:36)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잠 6:6~11)

(룻 2:3~7)

(마 9:35~38)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요한복음 4장 28~38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예수님은 여행 도중에 피곤하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음식 드시는 일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전도집회를 앞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2. 35절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추수할 계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3. 주님은 우리가 이미 샅을 받은 상태에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 이미 샅을 받고 :
-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
4.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고 재미있으며, 어느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전도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할 뿐 아니라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영혼을 건지는 추수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전도집회에 동참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옷과 같이 낡아지는 지구



지구 온난화 때문에 동해에서 오징어가 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꽃별이 점점 사라져서 과수원 농부들이 붓으로
수정을 시켜야 과일을 얻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도시에서 별로 못느끼고
사시죠? 마트에 가서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입니다.

왜일까요? 앞만 보고 사니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명말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
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 1:10~12)

내일 아침에 합시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증기선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대양 한가운데서 배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구조선이 이 모습을 보고 센트럴 아메리카호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라고 구조선 선장이 물었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밤이고 또한 승객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배도 내일 아침까지는 떠 있을 것 같으므로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고 결정합시다.”라고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이 대답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구조선 선장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니 지금 사람들을 우리 배로 옮겨 타게 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그러나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은 “내일 아침에 합시다.”라고 다시 한 번 말하였습니다. 결국 한 시간 반 후에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으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안일한 사고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지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